

절 계단 하나하나에도 불교적 상징이 가득 담겨

계단(1) 좋은 사례

계단은 레벨이 다른 두 공간을 연결하는 구조물이다. 계단의 유형은 건물의 기단에 부속되는 것과 건물과는 상관없이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사찰의 경우에는 경사지를 평지로 조성해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옥외공간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다른 건축공간에 비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옥외공간에 계단을 만들 때 계단은 석단과 동시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석단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료와 축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물기단에 부속된 계단

건물의 기단에 부속된 계단은 기단 형식에 따라 그 형태와 재료 조성방식이 달라진다. 토축기단이나 자연석 기단에 붙이는 계단은 자연적으로 만들고, 장대석 기단과 가구식 기단에 붙이는 계단은 장대석으로 만들게 된다.

사찰의 건물기단에 부속된 계단은 대체적으로 장대석 계단이 많다. 장대석 계단을 만들 때에는 디딤돌을 아랫단부터 차례차례 올려놓는데, 윗단은 아랫단 뒷뿌리에 살짝 걸치도록 놓는다. 장대석 계단은 디딤돌 양 마구리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와 소맷돌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소맷

돌은 통돌로 만들기도 하고 가구식으로 만들기도 한다. 가구식일 경우에는 밑에 지대석을 받친 다음 기둥을 세우고 계단의 경사에 따라 외장대(臥長臺)를 놓고 나서 그 사이에 면석을 끼운다. 계단의 높이가 높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장대 위에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은 보통 하엽형의 동자를 세우고 그 위에 원형이나 팔각으로 다듬은 난간대를 올려서 마무리한다. 난간의 끝에는 범수석 또는 문로주를 세워서 난간대를 고정하게 되며, 범수석에는 상징적인 동물을 올려놓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찰의 건물기단에 부속된 계단은 소맷돌이 특별한 미적 요소로 취급되어 사찰마다 독특한 디자인을 보인다. 소맷돌 자체를 사자나 용의 형태로 조각해 상징성을 극대화하기도 하고 면석에 연꽃이나 구름문양을 새겨 넣어 불교적 상징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사찰에서도 주불전 기단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른 건물 기단에 설치하는 계단보다 높이가 높고 폭도 넓으며, 장식성도 뛰어나다. 이것은 건물의 계층적 질서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계단으로는 불국사 대웅전 계단, 통도사 대웅전 계

불국사·통도사·송광사 계단
아름답고 재밌어 많은 사랑 받아



불국사 연화·칠보교



불국사 청운·백운교



봉선사 석단에 연결된 계단

단, 송광사 관음전과 일주문 계단, 선암사 일주문 계단, 범주사 대웅전 계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계단은 소맷돌 디자인이 아름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며, 불교적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불국사 대웅전 계단의 소맷돌은 외장대와 면석 그리고 지대석이 통돌로 만들어진 것으로 면석의 테두리에 띠를 넣으면서 모서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기교를 부려 동세를 부여했다. 동시에 띠부분을 약간 높게 조각해 입체감을 살리고 있다. 통도사 대웅전 계단은 활짝 핀 연꽃문양을 새겨 넣었고, 범주사 대웅보전 계단 역시 꽃문양을 넣어 상징성을 부여했다. 송광사 관음전·일주문 계단과 선암사 일주문 계단은 소맷돌 자체를 서수모양으로 조각해 특이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한편, 범주사 대웅보전 계단은 소맷돌 윗부분에 원숭이 상을 조각해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져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옥외공간의 연결을 위해 설치된 계단

옥외공간에 설치된 계단은 건물의 기단에 부속된 계단보다 높이가 높고 폭이 넓고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단의 재료는 자연석, 장대석 등 다양한데, 석단과의 조화를 위해서 계단과 석단의 재료를 동일하게 사용하게 된다. 계단을 놓는 방법은 석단을 파고 들어가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와 석단 전면부에 계단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석단 측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계단의 노출정도가 심하게 나타나 중요한 경관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다.

옥외공간을 연결하는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소맷돌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석단 전면부에 붙여서 설치한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측면에서 뒷채움방식과 디딤돌을 쌓아올린 형태를 들여다볼 수 있다. 한편, 옥외계단의 경우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난간의 형태나 설치방법이 계단의 디자인을 달리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한국의 전통사찰에는 높이가 다른 두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많은 계단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불국사의 청운·백운교와 연화·칠보교는 특별하게 디자인된 계단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운·백운교와 연화·칠보교의 경우는 계단에 '교'라는 이름을 붙여 다리의 개념을 부여했다. 이것은 속의 공간으로부터 성



범주사 대웅보전 계단



불국사 대웅전 계단



선암사 일주문 계단



송광사 관음전 계단

(聖)의 공간인 화엄세계와 극락세계를 연결하는 상징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청운교와 백운교 사이, 연화교와 칠보교 사이에는 홍예를 두어 다리의 이미지를 디자인적으로 해결한 것을 보면 신라시대의 장인들이 가졌던 디자인과 시공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다보탑에도 석단에 조성한 계단과 같이 범수석을 두어 반복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화교 디딤돌에 연꽃잎을 새겨놓은 것도 흥미롭다.

화엄사의 경우에는 길게 다듬은 장대석을 사용해 계단을 축조했는데, 지대석을 몇 단 놓은 후 외장대를 설치하고 면석을 쌓아올렸다. 면석에 사용한 돌은 석단에 사용한 돌처럼 장대석을 크게 다듬은 것으로 석단과의 조화가 일품이며, 웅장한 이미지를 준다. 화엄사와 같이 높이가 높은 계단의 양측 마구리를 면석으로 마무리한 예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계단은 디자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봉선사와 같이 조선시대 왕실에서 조영한 사찰의 경우에는 석단과 마찬가지로 계단 역시 장대석을 잘 다듬어 디딤돌을 만들고 마구리에 소맷돌을 설치하여 완결된 형식성을 보



나소사 자연석 계단

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지사찰에 조성된 계단은 수덕사 대웅전 전면 석단에 붙여 만든 계단과 같이 양측 마구리를 면석으로 마감하지 않고 장대석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자연석으로 계단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석을 다듬어 축조하기도 했지만 돌을 생긴 모양 그대로 쌓아올려 계단을 만들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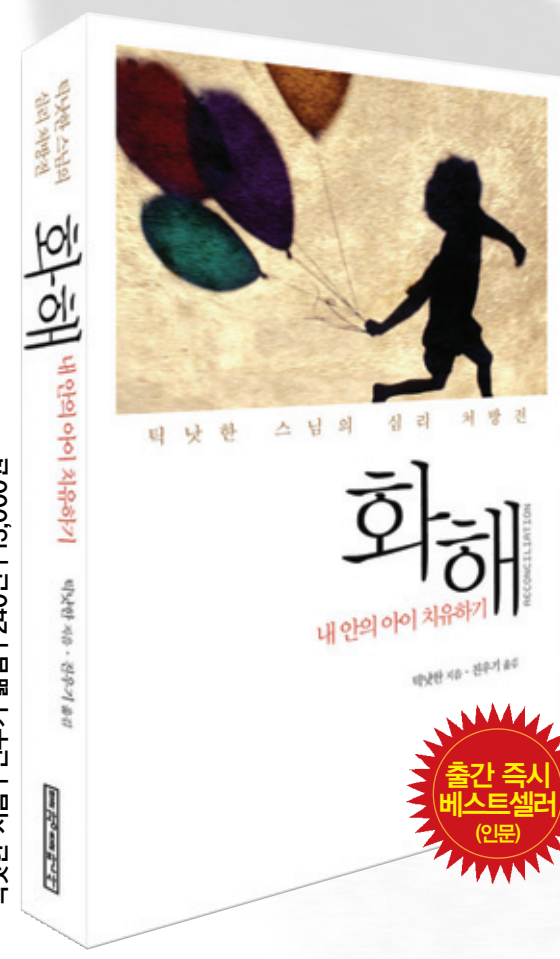
산간벽지에서 사세가 험준한 경우에는 석단 하나, 계단 하나를 만드는데도 힘이 베풀었을 것이니 이러한 때에는 봉영사

나 백련사 계단처럼 주변의 돌을 모아 다듬지 않고 정성스럽게 쌓아올려 계단을 만들었던 것이다.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자연석 계단이 오히려 산지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경관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계단에서 한 국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화> 이후 9년, 틱낫한 마음 치유 이야기의 결정판!



틱낫한 스님의 심리 처방전

화해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너무 오랫동안 나를 내버려둔 건 아닐까?’

내면 아이를 찾아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길잡이
꼭꼭 숨겨 두었던 마음속 짐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머물다 쉬어 갈 수 있는 책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인문)

틱낫한 마음 | 진유기 옮김 | 240면 | 13,000원

bulkwang.com |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bulkwang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15분 명상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명상!
하고 싶지만
왠지 어려운가요?

책 콘필드 지음 | 추선희 옮김
156면 | 12,000원
부록: 명상유도 CD

초보자를 위한 본격 명상 입문서

스티브 잡스의 통찰력과 창의력
마이클 조던의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기획력과 업무력 향상
평온한 마음과 면역력 증강
- 당신도 얻을 수 있다